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배은경** · 최인숙***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에서 실시한 지역아동센터 패널조사의 2기패널 1차(2014)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부모-자녀관계를 보기 위하여 조사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아동 가운데 양부모 또는 한부모 가정 아동 57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자신의 학교적응 수준을 적응하는 편으로 보았으며,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지역사회인식, 공동체의식에 있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적응, 부모 대화, 공동체의식에 있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학교적응,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지역사회인식 및 공동체의식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학교적응은 부모-자녀 관계 요인, 또래 관계 요인, 지역사회인식, 공동체의식과 모두 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최종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약 50%이었으며, 미시적 사회적 자본 가운데 부모-자녀관계 요인, 또래관계 요인 순으로 설명력이 높았고, 이어서 중시적 사회적 자본요인인 지역사회인식, 거시적 사회적 자본 요인인 공동체의식 순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적응 향상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지역아동센터, 학교적응, 사회적 자본, 공동체의식

* 본 연구는 2015년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연구계획서 공모사업의 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제1저자

***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aneschoi@honam.ac.kr

I. 서 론

2004년 법제화 이후 지역아동센터는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4,05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08,936명의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5) 지역의 대표적인 아동청소년서비스전달체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86%가 경제상황에 따라 우선보호아동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가정 아동 등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의 비율도 12.2%에 달한다(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5).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아동의 이용이 용이하며,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자원의 통합은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보호 개념을 실현하기에 용이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도움이 된다(정익중, 2014). 아울러,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신뢰와 연대,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가 건전한 커뮤니티를 통한 주민·아동·관계 기관의 협동의 장으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부성래, 2014).

이와 같이 아동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자원이 늘고 있는 것과 달리, 매년 6만여명의 아동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학교 밖으로 이탈하는 아동청소년은 28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교육부, 2014). 아동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2015년 5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청소년쉼터 외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주된 서비스 대상은 학교밖청소년으로, 학교이탈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나 후속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기 아동기부터 학교가 주요한 사회화 단위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Hawkins & Weis, 1985)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86%가 우선보호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5)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 및 범주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으며(Coleman,

1988; Fukuyama, 2001; Lin, 2001; Putnam, 1993, 2000), 그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측정 역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왔다(소진광, 2004; SCCBS, 2007; World Bank, 2004). 그 중 사회적 자본을 논의함에 있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신뢰와 유대감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자본에 주목하여 미시적으로 접근한 Coleman(1988)과 개인의 관계가 시민사회로 확장한 측면에 주목하여 거시적으로 접근한 Putnam(1993, 2000)의 개념은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어져 오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자본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신원영, 2010), 학업성취와 중단(김현주, 2006; 김태균, 2008; 신원영, 강현아, 2008), 비행(강현아, 2007; 이재영, 공태명, 2010) 등 비교적 다양하게 다루어져왔다. 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대개 개인이나 집단이 형성하는 관계의 패턴에 미시적으로 주목한(유석춘, 장미혜, 2002) Coleman을 활용하여 가정 내, 외의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부모자녀관계 등에 초점을 맞춰 탐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강현아, 2007; 김태균, 2008; 김현숙, 2011; 신원영, 강현아, 2008; 양숙경, 문혁준, 2009; 조유리, 강현아, 2011).

최근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자본 요인을 가족 내 요인에서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넓혀 살펴보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그러나, 가족 외 변인으로 사회적 자본의 차원을 확장한 선행연구에서도 그 범주를 지역사회 차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측정 변수 역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전학횟수와 아동청소년활동 및 서비스이용경험(강현주, 김정화, 최민지, 2012), 지역주민간 신뢰감 및 규범준수(김경식, 최성보, 이현철, 2009), 거주지역 인식(서정아, 2013) 등과 같은 변수들이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적 자본으로 측정된 바 있으나, 아동에게 있어 관련 변수들이 가지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그 성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공동체의식과 같은 거시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은 최근 시민사회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나(김태준, 이영민, 이재연, 2012; 홍영란, 현영섭, 2013),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 공동체의식을 사회적 자본의 변인으로 함께 살펴본 선행연구는 제한적으로 있어왔다(서정아, 2013). 서정아(2013)의 연구는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가족과 지역사회 요인으로 한정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적 자본 요인으로서 공동체의식 변수를 살펴보고, 그 설명력의 차이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

다. 이에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또래관계 요인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대표적인 지역사회 아동보호기관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 민주사회 시민으로 가지는 공동체의식과 같은 사회적 자본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봄에 있어 사회적 자본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학교적응은 단일요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개인의 특성, 가족 등과 같은 다차원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이지연, 정익중, 백종림, 2014).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적, 물질 자본을 사회적 자본이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둘째,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가 강화되고 있고, 신사회적 위험(Taylor-Gooby, 2004)에 대응함에 있어 공동체의식 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회적 자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동의 지역사회인식과 공동체의식을 중시적, 거시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자본 연구가 개인이나 집단이 형성하는 관계의 패턴에 주목한(유석춘, 장미혜, 2002) Coleman의 개념을 중심으로 미시적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제한점을 고려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Putnam(1993, 2000)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기반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미시, 중시, 거시적 차원의 영향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복지국가로 나아감에 있어 한국사회가 복지 수혜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때 사회적 자본 개념의 활용이 유용함을 고려하였다. 기존의 아동복지정책이 현실적으로 취약계층 아동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실행되어진 것을 고려할 때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자본 확대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윤홍식, 2006, p.131)이 아동복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에 있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는 것은 사회투자전략으로서의 아동정책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최영, 박순우, 2007)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서비스전달체계인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에 용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 자본을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마련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인식하는 학교적응 및 사회적 자본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적응과 사회적 자본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사회적 자본 요인들, 미시적 사회적 자본 I (부모-자녀관계), 미시적 사회적 자본 II(또래관계), 중시적 사회적 자본(지역사회인식), 거시적 사회적 자본(공동체의식)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학교적응

학교는 대부분의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물리적 공간이자 교사 및 또래와 관계를 맺으며 아동이 자기상을 형성하고 성장하게 되는 심리·정서적 장(場)으로,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은 아동 발달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학교적응은 ‘아동이 학교 환경에 대하여 편안하게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성공하게 되는 정도’(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7, p.1183)로, 학교라는 환경 안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을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환경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과정(곽수란, 2006)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교적응은 주로 학교수업 및 학업성취(곽수란, 2008; 이정은, 조미형, 2007; DuBois, Eitel & Felner, 1994; Kurdek, Fine & Sinclair, 1995), 교사와의 관계(양은별, 김태우, 박은혜, 이소연, 정익중, 2015; 홍성훈, 김희수, 2006) 및 또래관계(김영춘, 2014; 이재인, 김춘경, 한은수, 2014)에서의 적응 정도가 개념 구성에서 중

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리고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이지영, 김희화, 2011; 양숙경, 문혁준, 2009; 최옥희, 김용미, 2008)들은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서는 부모양육행동(이경희, 성춘희, 김미정, 2014), 사회적 지지(임성옥, 박민정, 2011), 자존감(성낙현, 표갑수, 2012; 임선아, 2013; 장경문, 2011), 학교적응프로그램 효과성(정은미, 2006) 등을 살펴본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지역아동센터는 2014년 말 기준 4,059개소, 108,936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 아동의 86%가 우선보호아동으로(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5)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보호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역사회기관으로 볼 수 있다. 후기 아동기부터 학교가 주요한 사회화 단위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Hawkins & Weis, 1985) 아동의 학교적응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학업성취 측면에서 빈곤가정의 아동이 비빈곤가정 아동보다 2배 이상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rooks-Gunn & Duncan, 1997), 부모의 훈육 및 지도감독, 부모와의 대화, 신뢰관계 수준은 비빈곤가정 아동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다(최선희, 김희수, 2004).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곤란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윤혜미, 2005), 실제 학습부적응, 일탈행위 등의 문제 등이 보고된 점(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우리나라에서 학교적응이 아동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최성보, 이현철, 김경식, 2011)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교적응

사회적 자본은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며 관계적 특성을 가지며(홍영란, 김태준, 현영섭, 소진광, 이승희, 2007), Bourdieu(1986), Coleman(1988), Putnam(2000) 등이 이 개념을 확장시켜왔다. 현재 논의가 되는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는 크게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미시적 접근은 주로 개인 및 집단의 관계 패턴에, 거시적 접근은 공동체나 집단 전체의 정치문화, 조직 특성을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관점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여 왔다(유석춘, 장미혜, 2002; Halpern, 2005). 그러한 측면에서 유석춘과 장미혜(2002)는 사회적 자본을 개인이나 집단이 형성하는 관계의 패턴에 주목한 Coleman(1988)을 미시적 접근으로, 공동체나 집합체 전체의 정치문화나 조직의 특성에 주목한 Putnam(2000)을 거시적 접근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며 사회적 자본의 연구 경향에 대해 논한 바 있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을 경제적 자본, 인적 자본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신뢰와 유대감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자본으로 설명하였다. 반면, Putnam(1993, 2000)은 사회적 자본을 측정함에 있어 지역사회나 조직생활에 대한 참여의 강도, 투표 등과 같은 정치 참여나 관심,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친구관계와 같은 비형식적인 사교성,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뢰와 같은 5가지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민문화 및 공동체 의식의 발달 정도 등이 경제와 국가에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러한 결과는 미국(SCCBS, 2007), 영국(Harper, 2002), World Bank(Grootaert, 2001; Grootaert, Narayan, Jones & Woolcook, 2004)의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에도 영향을 끼쳤다. 특히, World Bank는 사회적 자본을 미시, 중시, 거시의 수준에서 개념화하였고(Grootaert, 2001), 사회적 자본이 공식적 시민조직과 다양한 비공식적 네트워크 안에서 관계의 본질을 의미한다고 보았다(Grootaert et al., 2004).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 선행연구들이 있어왔으나, 대개 가정내 사회적 자본, 가정외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며 Coleman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져왔다(강현아, 2007; 강현주 외, 2012; 김연희, 김선숙, 2008; 김현숙, 2011; 신원영, 2010; 이재영, 공태영, 2010; Parcel & Dufur, 2001; Teachman, Paasch & Carver, 1996). Coleman(1998)은 주로 부모-자녀간의 관계나 그 밖의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설명해왔으며, 가족 밖의 사회적 자본(Coleman & Hoffer, 1987)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아동의 전학횟수나 지역사회기관의 활동 참여,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 등을 적극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개념을 아동 대상으로 활발히 적용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가정내 사회적 자본 중 부의 학력과 형제자매수는 빈곤학생의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김현숙, 2011) 부모감독, 부모-자녀간의 의견 공유가 풍부할수록 아동이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경식 외, 2009). 가정외자본 중 또래애착은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 메타분석에서 아동의

초, 중, 고 모든 시기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선화, 김진숙, 2015).

최근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아동의 사회적 자본을 살펴봄에 있어 보다 거시적인 관점을 반영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신뢰, 사회참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강화될수록 국가적 차원의 아동복지 수준은 50%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utnam, 2000), 사회적 자본의 한 영역이자 사회공동체의 공동체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에서도 공동체의식 등은 아동의 교육에 있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추세이다(홍영란, 현영섭, 2013). 이에, 아동의 사회적 자본과 학교적응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주민간 신뢰감 및 규범준수(김경식 외, 2009), 거주지역 인식, 공동체 의식(서정아, 2013) 등의 변인이 지역사회 차원으로 사회적 자본의 범주를 확장하여 다루어졌다. 공동체의식이 높은 지역사회 청소년은 학교에 더 잘 적응하였으며(서정아, 2013),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식 외, 2009).

그러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인식과 달리 공동체의식은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 사회구성원의 정신적 측면의 사회적 자본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제도와 규범, 호혜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홍영란, 현영섭, 2013) 보다 거시적인 사회적 자본 지표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아동에게 관련 변인들이 가지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그 성과를 축적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인적, 물질 자본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적응 영향 요인

아동의 학교적응은 다차원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이지언 외, 2014). 저소득층의 경우, 부의 학력은 아동의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며(김현숙, 2011), 빈곤가정의 아동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 학교적응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Huston, McLoyd & Coll, 1994). 반면, 부모, 이웃, 친구 등으로부터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학교적응

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Malecki & Demaray, 2002)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미시적 사회적 자본(가정내, 가정외), 중시적 사회적 자본, 거시적 사회적 자본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함에 있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뿐 아니라 빈곤 아동 등 전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넓혀 살펴보려고 하였다.

미시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 요인은 가정내 사회적 자본과 가정외 사회적 자본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정내 사회적 자본은 부모자녀관계를 우선적으로 들 수 있으며, 부모감독 및 부모와의 대화 등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는 학업성취를 가장 강력하게 설명해주는 사회적 자본 변인(신원영, 강현아, 2008)으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양육행동은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unola, Stattin & Nurmi, 2000; Forehand et al., 1986).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이 클수록 학교적응을 잘하고, 특히 대화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양숙경, 문혁준, 2009),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지적일수록 학교적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민하영, 권기남, 2004). 이러한 결과는 메타분석을 통해서도 일관성있게 뒷받침되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개방형일 때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장 크며(원재순, 김진숙, 2014), 부모와의 대화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끼침에 있어 특히 기능적 의사소통의 효과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박주영, 2014). 반면, 부모의 감독이 통제적이거나 강압적인 양육방식을 쓸 경우 학교적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Bascoe et al., 2009).

미시적 차원의 가정외 사회적 자본 요인으로는 또래관계 등을 들 수 있으며, 또래 의사소통, 또래 신뢰 등이 활발하게 적용되어 왔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친구의 지지는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현주, 2010), 학교적응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채선화, 김진숙, 2015)에서도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의 상관관계는 검증된 바 있다. 친구의 지지는 빈곤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고(김현주, 2010),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또래애착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애착이 또래 애착에 영향을 미쳐 학교적응에 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이

재인, 김춘경, 한은수, 2014).

중시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 요인으로 지역사회인식 등을 들 수 있으며,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사회적 자본 요인으로 다루어져왔다(Putnam, 1993; Elliott et al., 2006). 지역사회 인식과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관계는 아동의 학업 성취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이경남, 2008; 이정선, 2005), 거주지 주변의 환경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은 학교중도탈락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형, 2006).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비행과 관련하여서도 지역사회인식과 관련하여 유해환경접촉, 범죄관련환경, 거주환경적 위험요소 인식은 위험요인으로, 돌보는 이웃, 이웃의 안전은 보호요인으로 분류된다(양종국, 김충기, 2002). 실제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와 유흥업소의 수가 청소년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윤옥경, 2008)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해체된 지역사회에 살게 되면 긍정적 역할모델이 결핍되는 등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여 아동이 학교에 적응하기보다는 비행에 빠져들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익중, 2009).

거시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 요인으로 공동체의식에 주목하였으며, 공동체의식은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 사회구성원의 정신적 측면의 사회적 자본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제도와 규범, 호혜성을 포함한다(홍영란, 현영섭, 2013). 공동체의식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강화될수록 국가적 차원의 아동복지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Putnam, 2000), 공동체의식과 같은 거시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은 최근 시민사회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김태준 외, 2012; 홍영란, 현영섭, 2013). 공동체의식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큰 것에 비하여(Harper, 2002; SCCBS, 2007) 공동체의식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공동체의식은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조명주, 2007; 서정아, 2013). 특히, 김영준(2014)의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이 학교규칙 준수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적응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 간의 영향력 차이를 검증함에 있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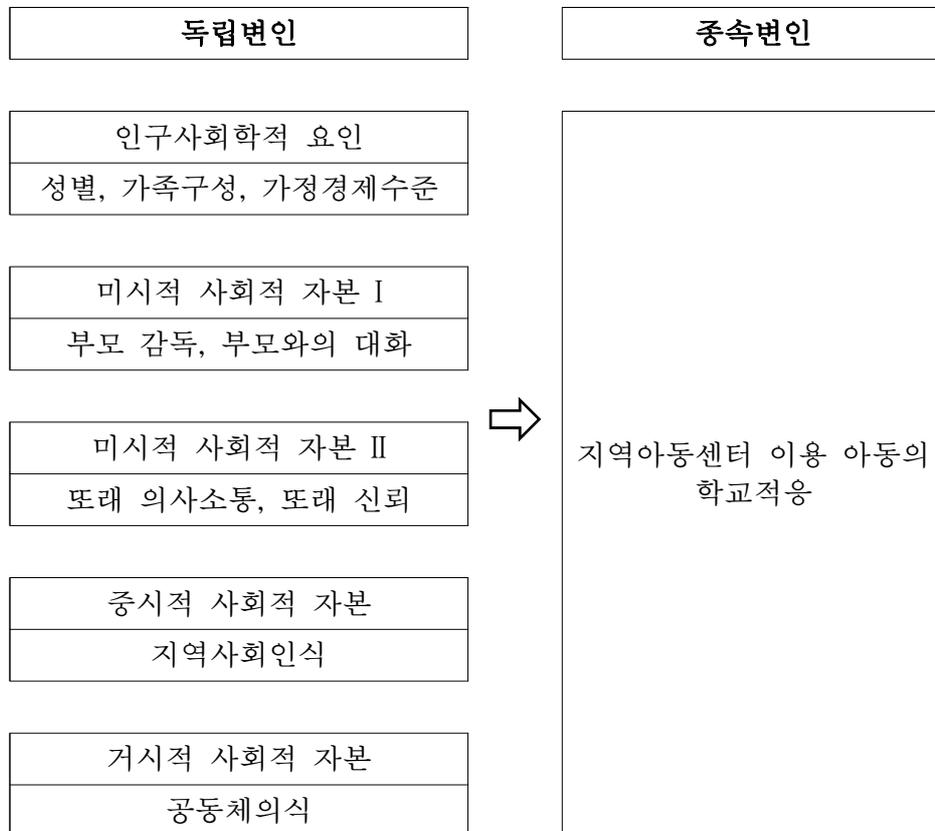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이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에서 실시한 지역아동센터 패널조사 연구의 2014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패널연구의 2기 패널 1차 조사(2014)로 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목표표본을 할당하였는데,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층화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 모집단 인구를 토대로 한 제곱근 비례배분 방식으로 표본을 할당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574)		
범주	하위범주	빈도(%)
성별	남	289(50.35)
	여	285(49.65)
가족구성	양부모	400(69.69)
	한부모(모자 가정)	105(18.29)
	한부모(부자 가정)	69(12.02)
가정경제수준	기초생활수급대상	89(15.51)
	차상위계층	169(29.44)
	사각지대	105(18.29)
	보통 이상	211(36.76)
	Mean(SD)	2,84(1,23)
부 학력 (N=469)	중졸 미만	8(1.71)
	중졸	12(2.56)
	고졸	229(48.83)
	대졸이상	69(14.71)
	무응답	106(22.60)
모 학력 (N=505)	중졸 미만	10(1.98)
	중졸	16(3.17)
	고졸	255(50.50)
	대졸이상	111(21.98)
	무응답	113(22.38)

이상과 같은 절차를 통해 1년 이상 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최종 표본으로 확정되어 조사를 완료한 표본은 전국 150개 센터의 606명이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를 중점적으로 보기 위하여 조사 대상 가운데 부모가 없는 아동을 제외하고 양부모 또는 한부모 가정 아동 574명(남아 289명, 여아 285)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양부모 가정 아동이 69.69%, 한부모 가정이 30.31%를 차지하였다. 가정경제수준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1점(매우 못 산다)에서 7점(매우 잘 산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아동의 가정경제수준을 평가하였는데, 평가가 용이하도록 질문지에 1점을 기초수급대상, 2점을 차상위층, 3점을 사각지대, 4점을 보통으로 함께 표기하였다. 조사대상 아동의 가정경제수준은 사각지대 수준 이하인 아동이 63.24%이며 가정경제수준의 평균이 2.84(SD=1.2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정의 경제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도구

1) 종속변수: 학교적응

학교적응을 평가하기 위하여 문선모(1977), 이상필(1990)의 척도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정화실, 1991에서 재인용)가 이용되었다. 이 척도는 학교수업, 교사 및 교우관계에서의 적응 정도를 평가하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이다. 원문항은 1(매우그렇다)~4(전혀그렇지 않다)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코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클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83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2) 미시적 사회적 자본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모 양육태도 가운데 부모 감독과 부모와의 대화 양에 대해 아동이 평가하도록 하였다. 먼저 부모 감독은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 척도에서 3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원문항은 1(매우그렇다)~4(전혀그렇지 않다)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코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점수가 클수록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73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부모와의 대화 양은 자신의 고민, 학교생활, 책·TV·영화,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해 부모와 나누는 대화의 양이 1주일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5개 구간(1=거의 하지 않는다, 2=일주일에 1~2회, 3=일주일에 3~4회, 4=일주일에 5~6회, 5=매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클수록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78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3) 미시적 사회적 자본 III(또래 관계)

또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또래 애착 가운데 또래 간 의사소통과 신뢰감 정도에 대해 아동이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애착척도(IPPA)를 변안·수정한 김지연(1995), 황미경(2010)의 문항을 활용하여 구성되었다. 먼저 또래 의사소통은 친구와의 의사소통을 평가하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래 신뢰 척도는 친구들 간의 신뢰와 친밀한 정도를 평가하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는 모두 4점 척도이며 원문항은 1(매우그렇다)~4(전혀그렇지 않다)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코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점수가 클수록 또래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고 신뢰하는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각각 .78, .79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4) 중시적 사회적 자본(지역사회인식)

지역사회인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to Adult Health(Carolina Population Center, 2009)에서 사용된 지역사회인식 문항을 변안한 뒤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은 6문항으로 4점 척도이며 원문항은 1(매우그렇다)~4(전혀그렇지 않다)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코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점수가 클수록 지역사회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68이었다.

5) 거시적 사회적 자본(공동체의식)

아동의 공동체의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권혜원(2004)의 민주시민 의식 조사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은 4문항으로 4점 척도이며 원문항은 1(매우그렇다)~4(전혀그렇지 않다)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코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점수가 클수록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80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 검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학교적응 및 사회적 자본의 전반적 경향

조사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과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전반적으로 학교적응 수준에 대해 스스로 학교에 적응하는 편이라고 평가하였다(M=3.08). 그리고 부모의 감독 수준은 높은 편(M=3.34)이라고 평가한 반면에 부모와의 대화에 대해서는 특정 주제에 대한 대화를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M=2.09). 친구와의 의사소통 수준에서는 소통이 잘 되는 편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였고(M=2.88), 친구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에 대해서도 대체로 그런 편이라고 응답하였다(M=2.98). 또한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었고(M=2.89), 공동체의식 수준도 대체로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M=2.95). 이상의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normality)을 점검하기 위해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의 점수를

살펴본 결과, 왜도는 -.824~1.064 범위로 나타나 3을 초과하지 않았고, 첨도는 -.227 ~.752로 10을 초과하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각 변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교적응($t=-2.87, p<.01$), 부모와의 대화($t=-2.38, p<.05$), 공동체의식($t=-2.27, p<.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 대화도 더 자주 하고 공동체의식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술통계 분석 결과 및 성별에 따른 변인 차이

변수		전체	남학생	여학생	t
		M(SD)	M(SD)	M(SD)	
학교적응		3.08(.55)	3.02(.55)	3.15(.54)	-2.87**
미시적 사회적 자본	부모-자녀 관계	부모 감독 3.34(.61)	3.31(.63)	3.38(.60)	-1.34
		부모 대화 2.09(.92)	2.00(.88)	2.18(.96)	-2.38*
	또래 관계	또래 의사소통 2.88(.68)	2.84(.70)	2.91(.65)	-1.41
		또래 신뢰 2.98(.72)	2.94(.73)	3.02(.71)	-1.34
중시적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인식	2.89(.53)	2.90(.53)	2.88(.53)	.61
거시적 사회적 자본	공동체의식	2.95(.64)	2.89(.67)	3.01(.60)	-2.27*

* $p<.05$. ** $p<.01$.

2.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학교적응과 사회적 자본 간의 상관관계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학교적응과 사회적 자본인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지역사회인식, 공동체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아동의 학교적응은 부모-자녀 관계 요인, 또래 관계 요인, 지역사회인식, 공동체의식과 모두 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변인간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가정의 사회적 자본인 부모의 감독, 부모와의 대화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이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신뢰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며, 아동의 지역 사회인식과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각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1. 학교적응	1	.42*** .37***	.35*** .47***	.54*** .53***	.58*** .53***	.51*** .49***	.52*** .42***
2. 부모 감독	.40***	1	.26*** .42***	.34*** .26***	.40*** .24***	.33*** .34***	.36*** .28***
3. 부모 대화	.42***	.34***	1	.27*** .42***	.29*** .33***	.23*** .38***	.27*** .31***
4. 또래 의사소통	.53***	.31***	.35***	1	.71*** .73***	.41*** .46***	.42*** .37***
5. 또래 신뢰	.56***	.32***	.32***	.72***	1	.43*** .42***	.39*** .40***
6. 지역사회인식	.50***	.33***	.30***	.43***	.42***	1	.49*** .41***
7. 공동체의식	.48***	.23***	.30***	.40***	.39***	.45***	1

*** $p < .001$.

3. 사회적 자본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가정내 사회적 자본(부모-자녀 관계), 가정의 사회적 자본(또래 관계), 중시적 사회적 자본(지역사회인식), 거시적 사회적 자본(공동체의식) 변인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

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성별, 가족구성, 가정경제수준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부모-자녀 관계 변인으로 부모 감독과 부모와의 대화를 투입하였다. 이어서 3단계에서는 또래 관계 변인으로 또래와의 의사소통과 또래와의 신뢰 정도를 투입하였으며, 4단계에서는 지역사회인식, 5단계에서 공동체의식을 투입하였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적의 회귀모형을 찾기 위해 성별, 가족구성을 가변수로 처리한 후에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분산팽창지수(VIF)가 1.009~2.237 사이에 분포하였고 더빈왓슨지수도 2.012로 나타나 중다회귀분석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최종회귀모형은 표 4와 같다. 변인을 모두 포함한 최종 회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약 50%였다($F=63.42$, $df=9$, $p<.001$).

인구사회학적배경 변인으로 구성된 1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1%로 성별($\beta = -.14$, $p<.01$)과 가정경제수준($\beta = .16$, $p<.001$)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여아일수록,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이후 2단계에 부모-자녀 관계 변인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23.4%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와의 대화($\beta = .32$, $p<.001$), 부모 감독($\beta = .27$, $p<.001$) 순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는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할수록,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이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3단계에 또래 관계 변인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16.2%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또래 신뢰($\beta = .29$, $p<.001$), 또래 의사소통($\beta = .19$, $p<.001$) 순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또래에 대한 신뢰감이 높고 친밀할수록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단계에서 지역사회인식 변인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3.8%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의식 변인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2%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의 지역사회인식($\beta = .23$, $p<.001$)과 공동체의식($\beta = .17$, $p<.001$) 모두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지역사회인식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강할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사회적 자본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투입변수	학교적응										
	1		2		3		4		5		
	<i>B</i> (<i>SE</i>)	β	<i>B</i> (<i>SE</i>)	β	<i>B</i> (<i>SE</i>)	β	<i>B</i> (<i>SE</i>)	β	<i>B</i> (<i>SE</i>)	β	
인구사회학적 변인	성별 ¹⁾	-.14 (.05)	-.13**	-.09 (.04)	-.08*	-.08 (.04)	-.07*	-.09 (.03)	-.09**	-.08 (.03)	-.07*
	가족구성 ²⁾	.05 (.05)	.04	.06 (.04)	.05	.02 (.04)	.02	.01 (.04)	.01	.02 (.04)	.02
	가정경제 수준	.07 (.02)	.16***	.07 (.02)	.15***	.06 (.02)	.12***	.05 (.01)	.12***	.06 (.01)	.12***
미시적 사회적 자본 I	부모 감독			.24 (.03)	.27***	.15 (.03)	.16***	.11 (.03)	.13***	.09 (.03)	.10**
	부모와의 대화			.19 (.02)	.32***	.12 (.02)	.12***	.10 (.02)	.17***	.09 (.02)	.16***
미시적 사회적 자본 II	또래 의사소통					.16 (.04)	.19***	.12 (.04)	.15***	.10 (.04)	.13**
	또래 신뢰					.22 (.04)	.29***	.19 (.03)	.25***	.17 (.03)	.22***
중시적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 인식							.23 (.04)	.23***	.18 (.04)	.18***
거시적 사회적 자본	공동체 의식									.15 (.03)	.17***
	<i>R</i> ²	.046		.282		.444		.482		.503	
	adjusted <i>R</i> ²	.041		.275		.437		.475		.495	
	<i>F</i>	9.21***		44.45***		64.42***		65.69***		63.42***	

주. 1) 여아=0, 2) 한부모=0

p*<.01,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에 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 자본을 가정내 미시적 사회적 자본, 가정외 미시적 사회적 자본, 중시적 사회적 자본, 거시적 사회적 자본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에서 실시한 지역아동센터 패널조사의 2기패널 1차(2014)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양부모 또는 한부모 가정 아동 57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자신의 학교적응 수준을 적응하는 편으로 보았으며,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지역사회인식, 공동체의식에 있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적응, 부모 대화, 공동체의식에 있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적응 및 부모와의 대화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양숙경, 문혁준, 2009; 이경희 외, 2014; 최옥희, 김용미, 2008)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사회적 자본 변인을 투입한 최종회귀모형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경식, 최성보, 이현철, 2009; 서정아,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서도 다차원적인 사회적 자본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최종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약 50%였으며, 부모-자녀 관계인 가정내 미시적 자본의 설명력이 가장 컸으며, 이어서 또래관계인 가정외 미시적 자본의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시적 자본과 거시적 자본도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입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시적·거시적 자본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아동기 후기 이후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중시적·거시적 자본이 아동의 학교적응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변화를 살펴보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적응 향상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학교적응에 가족내 미시적 사회적 자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아동 학교적응에 있어 부모와의 대화, 부모감독 등과 같은 부모역할이 중요함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아동보호를 위하여 야간 돌봄과 같은 사회복지적 서비스 확장을 우선하기에 앞서 근본적으로 부모가 학령기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현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15조에 근거하여 해마다 발표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의 상당수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해당되며, 기업(기관)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인증이 이루어진다(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참조). 일가정양립 정책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직업군에서 일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부모에게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강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부모와의 대화가 늘거나 대화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천적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자녀와의 대화 및 양육 방법을 다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인식과 공동체의식이라는 중시적·거시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근거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학교적응을 지원함에 있어 지역사회인식 및 공동체의식 향상에 초점을 둔 접근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인식은 지역주민 간의 신뢰 및 네트워크, 지역사회에 대한 안전성 인식 등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시민사회의 힘이 영향을 끼치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지역복지력 구축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실천 모델이 제시되고,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의 움직임에서 볼 수 있듯이(부성래, 2014),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강화 및 사회적 자본의 적극적 활용에 있어 지역아동센터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의 공동체의식 향상에 있어서도 사회적 자본과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고려한 교육 분야 지원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고 있는 점(홍영란, 현영섭, 2013)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수교육에 아동의 공동체의식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과 같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아동 대상 공동체의식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학교적응을 지원함에 있어 또래신포 및 또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용 아동의 또래신포 및 또래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특히 기존에는 아동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는 특정 프로그램 등이 주로 운영이 되었다면, 종사자가 지역아동센터의 일상 안에서 아동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서로 신뢰를 쌓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인의 의사로 중단한 아동의 경우 다른 영역이 만족스러워도 친구와의 관계가 힘든 경우 아동들은 스스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단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 이용을 중단한 아동이 센터 중단 이후 비정기적인 일과, 즉 방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일과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정선욱, 김진숙, 2014)를 고려할 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또래 관계가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동의 학교적응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보호를 실현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패널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 연구 주제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져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교사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가족의 미시적 사회적 자본 변인을 측정함에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교사와의 관계 변인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끼치는 영향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내 미시적 사회적 자본에서 부모-자녀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분리하지 않았는데 추후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봄으로써 미시적 사회적 자본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가능할 것이다. 후속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끼침에 있어 지역아동센터 이용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패널자료의 장점을 살려 본 연구주제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통하여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심도있게 검증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적응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를 다각화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적응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주제와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적

응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영향 요인을 검증할 수는 없었다. 현재 아동에 대하여 지역 사회 보호와 공동체의식 강화에 초점을 두는 아동복지정책의 기초를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 일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두어 학교적응 영향 요인을 검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사회적 자본 확장을 통하여 학교적응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가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자본 확대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윤홍식, 2006, p.131)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2015). 2015년 가족친화 인증기업현황. <http://ffm.mogef.go.kr/business/reviewCompany.do?rcyear =2015>에서 2015년 10월 30일 인출.
- 강현아 (2007).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35, 145-165.
- 강현주, 김정화, 최민지 (2012).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2), 281-306.
- 곽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1), 1-26.
- 곽수란 (2008). 학업수행에 따른 학교적응도 추이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8(1), 1-20.
- 교육부 (2014). **2014년 교육통계연보**. 세종: 교육부.
- 구인희,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1), 57-80.
- 권혜원 (2004). **중학생의 민주 시민 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식, 최성보, 이현철 (2009). 사회적 자본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가족, 학교, 지역 사회 내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교원교육**, 25(2), 60-83.
- 김기형 (2006).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족관계, 교우관계, 학교적응도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연희, 김선숙 (2008). 사회자본이 아동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36, 103-127.
- 김영춘 (2014). 또래애착,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도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9), 321-331.
- 김지연 (1995).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태균 (2008). 가족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의 학업성취와의 관계: ARCL모형을 적용한 종단연구. **청소년학연구**, 15(1), 59-80.
- 김태준, 이영민, 이재연 (201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숙 (2011). 부모의 인적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빈곤 학생과 비빈곤 학생 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0, 123-150.
- 김현주 (2006).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중학생 대상의 실증조사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11, 1-24.
- 문선모 (1977). 학생의 배경적 특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학생지도연구**, 4, 19-28.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하영, 권기남 (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81-92.
- 박주영 (2014).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5).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 부성래 (2014). 지역아동센터 향후 10년의 과제. **2014년 한국아동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지역아동센터 10년: 성과와 과제**, 27-54.
- 성낙현, 표갑수 (2012). 농촌지역 빈곤아동의 학교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지역아동센터 이용만족도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0(2), 41-63.
- 소진광 (2004).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1), 89-118.
- 신월영, 강현아 (2008).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4), 57-87.
- 신월영 (201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ARCL 모델을 적용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2, 7-32.
- 양숙경, 문혁준 (2009).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사회 인구학적 변인,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과 자아탄력성의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7), 59-71.
- 양은별, 김태우, 박은혜, 이소연, 정익중 (2015).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청소년 및 가정외보호청소년 비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1, 311-331.

- 양종국, 김충기 (2002). 비행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2), 101-122.
- 원재순, 김진숙 (2014).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학교적응 간 상관관계 메타 분석. **청소년 시설환경**, 12(3), 123-135.
- 유석춘, 장미혜 (2002).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발전연구**, 8, 87-125.
- 윤옥경 (2008).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영향력 비교. **교정 연구**, 38, 107-138.
- 윤홍식 (2006).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한국사회복지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03-137.
- 윤희미 (2005).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7(3), 153-164.
- 이경남 (2008).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26(5), 211-224.
- 이경희, 성춘희, 김미정 (2014). 저소득층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유연성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1), 1-28.
- 이상필 (1990). **학교생활 적응수준에 따른 학업성적 및 행동특성의 차이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월이, 김동일 (2009).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적응 촉진요인. **상담학연구**, 10(4), 2495-2519.
- 이재영, 공태명 (2010). 가정·학교·지역사회 사회자본과 청소년 일탈행동. **사회과학 연구**, 17(3), 61-82.
- 이재인, 김춘경, 한은수 (2014). 초등학생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자기효능감, 학교적응간의 관계 구조분석. **초등교육연구**, 27(4), 345-367.
- 이정선 (2005). 학교발전의 필요조건으로서 학교문화의 변화전략. **지방교육경영**, 9, 1-19.
- 이정은, 조미형 (2007). 남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3), 79-102.
- 이지언, 정익중, 백종립 (2014). 학교적응의 예측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학회지**, 35(2), 1-23.
- 이지영, 김희화 (2011).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 및 외모комплек스와 학교

- 생활 적응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8(8), 65-88.
- 임선아 (2013). 민주적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자존감, 학교적응에 미치는 구조모형 비교: 저소득층 아동과 비저소득층 아동. **교육심리연구**, 27(1), 125-142.
- 장경문 (2011).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통제가 남녀 초등학생의 자존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2), 243-261.
- 정선옥, 김진숙 (2014). 논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센터이용 경험: 지속과 중단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9(단일호), 115-141.
- 정은미 (2006).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의 적응유연성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아시아아동복지연구**, 4(4), 71-83.
- 정익중 (2009). 청소년비행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 **한국청소년연구**, 20(3), 253-280.
- 정익중 (2014). 지역아동센터 지난 10년의 성과와 전망. 2014년 **한국아동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지역아동센터 10년: 성과와 과제**, 1-24.
- 정화실 (2009). **초등학생의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명주 (2007). **학습자의 공동체 의식과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유리, 강현아 (2011). 아동빈곤이 가정내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권리**, 15(3), 369-390.
- 채선화, 김진숙 (2015). 학교급별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과 학교적응 간 상관관계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6(4), 339-358.
- 최선희, 김희수 (2004). 빈곤아동/청소년 실태 파악 및 정책방안 연구. **서울시용역 보고서**. 미간행자료.
- 최성보, 이현철, 김경식 (2011).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348-369.
- 최영, 박순우 (2007). 사회투자전략으로서의 아동정책의 변화 양상: 영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아동과권리**, 11(4), 579-611.
- 최옥희, 김용미 (2008).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과 학업성취 차이에 대한 연구. **아동교육**, 17(2), 275-285.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영란, 김태준, 현영섭, 소진광, 이승희 (2007).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 교육 개발원.
- 홍영란, 현영섭 (201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미경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사회불안과의 관계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unola, K., Stattin, H., & Nurmi, J. E. (2000). Adolescents' achievement strategies, school adjustment, an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3), 289-306.
- Bascoe, S. M., Davies, P. T., Sturge-Apple, M. L., & Cummings, E. M. (2009). Children's representations of family relationships, peer information processing, and schoo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5*(6), 1740.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Press.
- Bronstein, P., Duncan, P., D' Ari, A., Pieniadz, J., Fitzgerald, M., Abrams, C. L. et al. (1996). Family and parenting behaviors predicting middle school adjustment: A longitudinal study. *Family Relations, 45*, 415-426.
- Brooks-Gunn, J., & Duncan, G. J.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 55-71.
- Carolina Population Center (2009).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to Adult Health. Retrieved February 18, 2016, <http://www.cpc.unc.edu/projects/addhealth>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Coleman, J. S., & Hoffer, T. (1987). *Public and private high schools: The impact of communities*. New York: Basic Books.
- Demaray, M. K., & Malecki, C. K.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maladjustment for students at risk. *Psychology in the Schools*, 39(3), 305-316.
- DuBois, D. L., Eitel, S. K., & Felner, R. D. (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405-414.
- Elliott, D. S., Menard, S., Rankin, B., Elliott, A., Wilson, W. J., & Huizinga, D. (2006). *Good kids from bad neighborhoods: Successful development in social contex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rehand, R., Long, N., Brody, G. H., & Fauber, R. (1986). Home predictors of young adolescents' school behavior and academic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7, 1528-1533.
- Fukuyama, F. (2001).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velopment. *Third World Quarterly*, 22(1), 7-20.
- Grootaert, C. (2001). Does Social Capital Help The Poor? A Synthesis of Findings from the Local Level Institutions Studies in Bolivia, Burkina Faso, and Indonesia. Local Level Institutions Working Paper No. 10, Social Development Depart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 Grootaert, C., Narayan, D., Jones, V. N., & Woolcook, M. (2004). *Measur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ed questionnaire*(No. 18). World Bank Publications.
- Halpern, D. (2005). *Social capital*. Cambridge: Polity Press.
- Harper, R. (2002).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in the United Kingdom.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Retrieved February 18, 2016, from <http://www.oecd.org/edu/innovation-education/2382339.pdf>
- Hawkins, J. D., & Weis, J. G. (1985). The social development model: An integrated approach to delinquency prevention.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6(2), 73-97.

- Huston, A. C., McLoyd, V. C., & Coll, C. T. G. (1994). *Children and pover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urdek, L. A., Fine, M. A., & Sinclair, R. J. (1995). School adjustment in sixth graders: Parenting transitions, family climate, and peer norm effects. *Child Development, 66*(2), 430-445.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7). Classroom peer acceptance, friendship, and victimization: Distinct relation systems that contribute uniquely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8*(6), 1181-1197.
-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cel, T. L., & Dufur, M. J. (2001). Capital at home and at school: Effects on child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32-47.
- Putnam,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Taylor-Gooby, P. (2004). *New Risks, New Welfa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eachman, J. D., Paasch, K., & Carver, K. (1996). Social capital and dropping out of school ear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773-783.
- The Saguaro Seminar on Civic Engagement in America (2001). *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urvey: Executive summary*.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ssachusetts. Retrieved February 18, 2016, from <http://www.hks.harvard.edu/saguaro/communitysurvey/results.html>

ABSTRACT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school adaptation of children in a community child care center

Bae, Eunkyung* · Choi, In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school adaptation of children in a community child care center. The data of 574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ing community child care service from the Community Child Center Children Panel Survey(2014), conducted by the Headquarters for Community Child Centers, were used.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 in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reported themselves to be adaptive at school and rated their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s, perceptions of the local community, and their sense of community positively.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school adaptation, parent communication, and the sense of community. Second, children's levels of school adaptation were positively related to all the independent variables. Third, micro(in home and out of home), meso, macro levels of social capital predicted the school adaptation abilities of children in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These findings may provide grounds for providing proper services for children in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Key Words: community child care center, school adaptation, social capital, sense of community

투고일: 2015. 12. 14, 심사일: 2016. 1. 29, 심사완료일: 2016. 2. 12

* Honam University